

## “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

###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는 멸절 위기에 놓여 있는 종(種)들이 있다. 고래, 바다표범, 여러 식물과 동물들이 있다. 심지어 우리도 절망감과 위기감에 빠질 때 곧 멸절되어 없어질 종(種)처럼 느낄 때도 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기울어져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원수의 포로가 되어」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원수들은 그를 집어 던지려하고 그러나 다윗은 반석이요 구원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한다.

히브리어 ak(아크) 즉 alone(또는only)이라는 단어가 그의 시 처음 8절에서 5번 나오고, 9절에서 한 번 더 나온다.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 한다. 그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해야 한다. ‘ak(아크)’라는 이 한 단어가 시인의 갈등의 기록이고 승리의 기념물이 된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구원의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못할 뿐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믿으려고 더 하는데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를 오락문화로 끌고 들어가는 TV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시급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TV에 방영되는 예배실황에서 기도가 배제되고, 생각 없는 노래로 찬양이 대치되고 있다. 교양강좌나 흥미를 끄는 강단이 말씀을 대신한다. 오늘의 신앙의 위기, 믿음의 결여, 하나님 말씀 능력을 신뢰치 못하는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근본 원인은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재미있는 얘기나 좁은 신학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반석이고 구원이시며 피난처가 되는 요새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연약한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신을 격려한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독려한다. 그는 하나님만 믿으라는 필연성을 이 시에서 반복한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았다고 선언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도록 자신을 격려할 뿐 아니라 원수 대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

문제는 인간이 고난에 시달린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만 앙망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으로 고난을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요동치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임금이나 거느리던 신하 심지어 자기 자식으로부터 배신과 박해를 당했을 때도 그는 결코 비열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요동치 않았다. 그를 공격하는 충격이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떤 위협과 타격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요동치 않는 침착하고 평온하고 담대한 그의 신앙은 생각할수록 위대해 보인다. 그는 원수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면서 사람으로부터 희망도 없다 한다. 위난과 시련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시중 침착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하나님 외에는 달리 구원이 없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못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것이 못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관해 두 가지 큰일을 배웠다. 그것은 역사와 위험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강하신 전능의 하나님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배웠다. 우리도 권능과 자비가 함께 있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복종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랑(hesed)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637호] 2019년 4월 13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Mrs. Lumie Hwang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1 Cor 2:6-11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Rev. Euichang Kim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Hidden and Revealed" ..... Rev. Euichang Kim
* Hymn .....	210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reache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애(타이완), 필리핀,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르, 비사누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b>이종윤</b>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 네 믿음이 크도다 ”

■ 마 15:21~28  
 성경에는 큰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등 구약시대 대의 큰 믿음을 가진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요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의 한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1. 가나안 여인  
 본문에는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진 자’ 라는 칭찬을 받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으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는 칭찬뿐 아니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고 축복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그 곳에 사는 가나안 여자는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들려서 매우 고통 받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칩니다.(마 15:22) 그러나 이 같은 간절한 외침에 대해 예수님은 다소 예외적으로 한 마디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자비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침묵하시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 여인의 간곡한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여 흠소 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 15:27)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같은 간절한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은 간절하게 매달리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다는 교훈이 아니라 믿음의 바른 방향, 믿음의 올바른 대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거절을 통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2.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 신앙은 대가 없는 공짜 떡을 먹기 위함이나, 소원 성취,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생명의 떡임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칫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연합하며, 교제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신행일치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기 위해 물러든 사람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떡은 안주시키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 6:35)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짜 떡을 베푸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게 됨은 지극한 모성애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맺는 말**  
 우리는 삶 가운데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축복의 기회라고, 어떤 것은 저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세상적 판단에 의한 기준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각각의 환경이나 사건은 축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찾고, 발견하게 되며, 예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가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절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잘 알고 그분께 매달리며, 그 분께 마음을 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을 올바르게 정하고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갖추었을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자세가 고정되었다 함은, 자신의 소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며, 자신의 계획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니 마음과 소원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방향과 대상을 잘 정하므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의창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막 11:9-1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9(종려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140(130)...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 53:6, 인 도 자  
 롬 8:32, 요 10:35-36...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종운 원로목사  
 (God the Father's Love)

\* 찬 송 Hymn .....299(41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호주	박수강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사랑부 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특 별			
수요 I부					찬 양			
수요 I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심우진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18:19-21 ..... 인 도 자  
 찬 송 ..... 91(91) ..... 다 함 께  
 기 도 ..... 최입수 집사  
 성 경 ..... 막 11:7-10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 설 교 자  
 특별찬양 ..... 사 랑 부  
 \* 찬 송 ..... 141(132)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이영자 권사  
 성 경 ..... 골 1:24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 설 교 자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15일(월) ~ 4월20일(토)-

오전 5시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말은이

## 성금요일 특별연합기도회

오후 8시  
 설 교 ..... 김의창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소식

### 모임

1. 스테반회 월례회 / 14일(주) 3부 예배 후 104호
2. 한나 전도회 월례회 / 14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3. 리브가 전도회 월례회 / 14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4. 가브리엘 찬양대 연습 / 20일(토) 오후 2시 101호
5. 임마누엘 절기 찬양 연습 / 20일(토) 오후 4시 101호

### 알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고난주간 / 내일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고난주간 프로그램으로 인해 금주 다락방 리더 훈련은 모이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5일(월)-20일(토) 새벽 5시  
월, 화 - 서명철 목사 / 수, 목 - 장석남 목사 / 금, 토 - 조원영 목사  
·금식: 19일(금) 해있는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헌금으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구제를 합니다.)  
·성금요일 특별 연합기도회: 19일(금) 오후8시에 드립니다.(교구전체 연합다락방)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부활절 /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새벽예배는 오전 5시에 드립니다. 주일 I · II · III부 예배시간에는 성찬식과 부활절 감사헌금,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예배 시간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특별찬양예배로 임마누엘 찬양대가 섭니다.</p> <p>14.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5.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68명	235명	199명	1,302명	127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4/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 7일	헌 금	29,783,100	
	특별예배비		150,000
	교회학교운영비		15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375,700
	통 신 비		282,110
	수도광열비		208,000
	차량유지비		3,807,480
	도시인쇄비		96,000
	소모품비		6,500
	환경유지비		50,000
	수선유지비		540,100
	잡 비		21,000
	식당운영비		1,126,790
	합 계	29,783,100	7,063,680